

구 시마다니 창고

시마다니 창고는 1892년에 쌀 저장용으로 지어졌으며, 지금은 카페로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시마다니 가문은 야마구치현 출신으로 기타마에부네(北前船, 상품을 매매하면서 오사카와 홋카이도를 연결하던 상선)를 소유하고 주로 쌀을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시대의 변화에 재빨리 순응하여 1895년에 증기선으로 바꾸었고, 다른 상인들을 위해 화물 운반을 실시했습니다.

이 건물은 오타루에 있는 약 350개의 목골석조 창고 중 하나입니다. 뼈대가 목조로 된 창고는 모두 석재로 만들어진 창고에 비해 빠르고 경제적으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항구 도시에서는 일반적인 공법이 되었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오타루에 지어진 창고 대부분은 이와 같은 목골석조 구조로 되어 있으며, 현지에서 채석된 약 15cm 두께의 응회암 블록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돌의 두께가 건물의 강도를 높여 저장물을 추위와 화재로부터 보호했습니다. 1880년부터 1910년 사이에 오타루에서는 16번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902년에 오타루역의 몇 블록 남쪽에서 발생한 화재로 2,000채가 넘는 가옥이 손상되었지만, 돌로 덮인 창고는 아주 작은 피해로 끝났습니다.